

적상산사고 선원록 이안행렬도 화폭에 담다

무주군, 지역작가·주민 참여 한 달 동안 가로 9m 세로 1.2m 대형화폭 완성·전시

주민들과 작가들의 순수한 재능기부로 적상산사고 선원록 이안행렬도를 화폭에 담아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 농촌활력과와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조선시대 역사의 귀한 사료로 꼽히고 있는 적상산사고 선원록의 이안행렬도를 지역작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폭에 담아 전시하고 있다. 전시는 2022년 1월 한 달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이들이 12월 한 달 동안 밤과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 완성한 선원록 이안행렬도는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무주악(樂)센터) 전시실에서 가로 9m, 세로 1.2m 화폭에 담았다.

선원록은 왕실보첩(족보)로서 경복궁 선원보각에서 적상산 선원각으로 봉안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족보를 조망하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자료가.

이러한 귀중한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선원록 이안행렬도를 화폭에 그리기까지는 지역작가들과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결실로 맺어졌다.

그리고 무주군 농촌활력과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밑도 크다. 지역주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로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주제로 소규모 포럼을 열어 지역작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선원록 이안행렬도를 화폭에 담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들 작가와 주민들은 12월 한달동안 중앙과 서양의 콜라보를 통한 '공공예술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의미로 선원록 이안행렬도를 화폭에 정성스레 담았다는 후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정수씨(65세·무주군 안성면)는 "쉽게 접할수 없었던 작가와 함께 지역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돼 가슴이 뛰고 보람이 컸다"며 "지역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작가들의 순수한 재능기부로 적상산사고 선원록 이안행렬도를 화폭에 담아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 안성면)는 "쉽게 접할수 없었던 작가와 함께 지역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돼 가슴이 뛰고 보람이 컸다"며 "지역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이관배 사무국장은 "선원록 이안에는 수백명의 인원이 참여해 20여일 동안 밤과 열정을 쏟았던 것으로 적상산사고형지안이라는 사료에도 나와 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담긴 그림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완성돼 전시까지 이뤄져 보람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선원록 이안 행렬 경로를 보면 경복궁을 빠져 나와 경기도 의왕시~천안시 직산읍~논산시 연무읍~익산시 여산면~완주군 삼례읍~무주군 적상산사고 총 820리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임

"인재 양성과 가치창출로 여성 전문기관 위상 확보할 것"

전정희(62) 前 국회의원



전정희 센터장은 취임식을 통해 "센터는 2005년 법인 설립 이래 도내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 양성평등, 네트워크사업 등 주요 역할을 해 온 기관이다"며, "센터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만큼 앞으로의 책임이 크고 센터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여성의 미래를 선도하는 허브 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 전북지역 여성계에 활발하게 소통하며, 전문 여성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여성의 가치 창출에 주력하

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 신입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경영을 중심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자기발전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직장문화 만들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 정치외교학 석사를 거쳐 전북대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정희 센터장은 2005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초대 소장을 시작으로 전북대 겸임교수, 전북여성정책발전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 내 여성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이어 오고 있다.

특히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전북지역 내 여성발전을 위해 힘써 온 전문가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마이스산업 활성화 기관 표창

전북 마이스부로 지정·유니크베뉴 발굴 등 기여 공로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전북 마이스부로 지정 및 유니크베뉴 발굴 등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전라북도 마이스 전담기구 설립 및 한국 MICE산업발전협의회 가입, 전북스마트마이스얼라이언스 구축, 전북 글로벌 MICE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앞으로 농·생명, 금융,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전라북도 특화산업과 연계해 전라북도만의 특화컨텐츠를 발굴하고, 수도권·호남권과 연계한 초 광역권 마이스 실행체계를 구축해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미얀마 민주화 염원 3개 국어 시집 '붉은 꽃을 내 무덤에 놓지 마세요' 출간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인들(전북작가회의)'이 일간지에 발표했다. '미얀마 민주화 연대시'를 모아 시집 '붉은 꽃을 내 무덤에 놓지 마세요'를 출간한다. 이번 시집은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의미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출간한다. 클라우드 펀딩이란 후원,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면 미얀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집을 받아 볼 수 있다.

전북작가회의(회장 이병초) 회원들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인들'은 2021년 봄부터 미얀마의 민주화그룹들과 연대했다. 시집 '붉은 꽃을 내 무덤에 놓지 마세요'에는 '전북작가회의' 회원들이 창작한 '미얀마 민주화 연대시' 20편이 수록되었다. 수록할 작품의 선정과 번역 과정에서 미얀마 현지작가, 번역가가 참여했다.

한편 전북작가회의 회원들의 강의로, 원고료,

생활비 등을 아껴 모은 돈으로 미얀마 성금을 조성, 미얀마 현지에서 군부에 의해 고초를 겪은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로 전달한 바 있다.

우리의 피와 땀, 울무짓음이 고스란히 간직된 1980년 광주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고 인터넷이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1980년 광주는 우리의 가슴에 차갑게 박제된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21세기의 지금 1980년 광주가 고스란히 미얀마에서 재현되고 있다.

"미얀마는 1980년 광주 그대로이다. 군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일당 5,000원 남짓의 돈을 포기해야만 한다. 일당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먹을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목숨을 담보로 싸운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소마저 일반 시민들에게는 금지령이 내려졌다. 산소를 얻기 위해서는 군병원으로 가야하고 간다면 군부의 협력자로 변절한다는 의미

다"라고 쓴 이병초 시인(전북작가회의 회장)의 말처럼 2021년 미얀마는 1980년의 광주다.

시집은 한국어-미얀마어-영어 3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도서출판 걷는사람과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 발간을 진행한다. 이렇게 3개 국어의 항쟁 시집이 탄생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최초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사건이다. 현재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책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수익금은 미얀마에서 군부에 희생된 이들의 가족에게 생활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21세기 광주인 미얀마에 평화가 고스란히 피어나기를 바라며 '붉은 꽃을 내 무덤에 놓지 마세요'의 구입은 당분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가능하다. 클라우드 펀딩 주소는 <https://link.tumblrug.com/ISp4IYYFlamb>이며 펀딩 기간이 끝나면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김재훈기자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 포함" 이상직 의원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이상직 의원(전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 시키는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을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시켜 관련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제정 당시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해 실제 고대 마한 중심지였던 전북 지역은 고스란히 빠져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

아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고유 역사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상직 의원은 "전북을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관련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2022년 새해를 하루 앞둔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마한역사문화권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 등 체계적 정비, 문화재 가치확산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지역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효상기자

謹賀新年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

우리 모두와 함께 상생하고 모두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장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7대 회장단 및 제6대 대표회원”

회장 윤방섭	총무 김대영	부회장 양근환	부회장 박종환	감사 이호철	원로회원 김성권	원로회원 김승희	원로회원 이정기	원로회원 김승수	원로회원 이동근	원로회원 조병두			
국종훈	김호성	김만열	김성민	김양현	문길천	박형식	배윤식	이공희	이환범	전준모	정준모	최산성	최현호
김신길	김영량	김영욱	김용태	김재호	김종원	박영자	배진식	송영식	안장환	윤식	윤선화	윤일남	
이동규	이용규	이재신	정재훈	김기현	장용준	정준수	조금형	채이석	최도성	하대중	한상우		
김지원	고원석	권상민	김광현	김문수	김미정	김병학	김성광	김영우	김종우	김창수	김철빈	김철삼	김형모
김형주	남옥아	두현아	라형연	박하경	박혜영	백현이	서오성	송재철	신전만	오영훈	유득한	유명숙	유병수
유성희	이기열	이민규	이상모	이용만	이우재	이장규	이창춘	이해춘	이형우	전주형	정영주	조희관	조희창
진동선	최경호	최종호	최종환	최태림	최태용	한경완	한승진	황수원	황재준	황호영	황희정		

(기초:성명가나다순)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